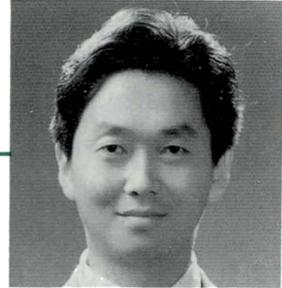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및 전망



정우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는 것은
관련 정책 수립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으로 하여금 복지서비스 일부를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 우선적으로 민간이 담당할 복지서비스의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부문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경우에도 민간이 담당할 노인복지서비스 시장, 다시 말해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망을 시도하는 것은 관련정책 수립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향후 2010년까지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실버산업을 주거관련분야, 보건·의료분야, 교육·관광 등의 여가활동분야, 의류·식품 등의 생활관련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시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한 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의 방법이 사용된다. 상향식 예측방법은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분야의 시장규모를 먼저 예측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업의 시장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면서 소비대체성이 높은 부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변동을 나타내어 주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상향식 방법은 산업이 분야별로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하향식 예측방법은 관

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지출 규모를 먼저 예측하고 여기에 산업내 분야별 지출률을 적용하여 각 분야의 시장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향식 방법만큼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산업이 분야별로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분야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분야별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하향식 예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하향식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실버산업내 소비계층인 65세 이상 인구층의 소비지출 현황 및 과거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된 소비지출 자료가 없고 노인의 부문별 욕구(needs)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어, 전체 연령층에 대한 민간최종소비지출로부터 노인층의 소비지출규모를 도출하는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분야별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하향식 예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과거추이 및 규모예측

1994년 우리나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국내총지출의 약 54.1% (가계: 53.3%, 민간 비영리단체: 0.8%)에 달하고 있는데 소비지출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70년 약 24조원에 불과하였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1994년에 약 128조원으로 증가하여 연 평균 약 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를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로 환산하면 1970년 약 74만 2천원에서 1994년 약 2백87만 2천원으로 증가하여 매년 약 5.8%씩 성장한 셈으로,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지출이 일본의 2.1%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팽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변화에 따른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결정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1970~1994년간 25개년도의 과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매년 1인당 국내총생산의 약 50% 정도를 최종소비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해년도의 소비지출은 과거의 소비지출의 오차항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연도의 오차항이 유의하다는 것은 과거의 소비지출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설명될 수 없었던 요인이 당해년도의 소비지출에 영

우리나라 국민은
매년 1인당
국내총생산의 약
50% 정도를
최종소비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추정결과

(단위: 천원)

	상수	1인당 국민소득	1년전의 오차항	2년전의 오차항	R ² 값	D-W값
계수	0.1660	0.4971	1.2286	-0.5387	0.99	2.07
t값	4.56	40.03	6.24	2.43		

국민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인당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앞에서 구한 추정결과와 경제성장 및 인구규모에 관한 장기예측자료가 필요하다. 재정경제원의 경제성장예측과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우리나라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는 4백4만 3천원, 2005년에 5백 19만 4천원, 2010년에 6백41만 8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4년 2백87만 3천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5.2%의 증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0년에는 1994년 수준의 2배가 넘는 규모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이 예상된다.

표 2.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전망

(단위: 천원, 1990년 불변가격)

연도	1994	2000	2005	2010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2,873	4,043	5,194	6,418
(지수)	(100)	(141)	(181)	(223)

2)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국민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예측치를 노인층으로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실버시장 규모를 도출하는 방법을 채용할 경우 노인 1인당 소비지출 규모를 전체국민 1인당 민간소비지출과 동일하게 가정하여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 행한 1989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에 따르면 소비지출규모는 연령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55세 이상 노인 1인이 소비지출하는 규모는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5~64세 노인은 평균보다 16%, 65~74세 노인은 4%를 더 소비한 반면, 75세 이상 노인은 오히려 7% 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지출과 노인 1인당 지출규모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1979년 「전국소비자실태조사」와 1980년 「국세조사」 자료를 합성하여 일본 노인 1인당 소비지출 규모를 일본 국민 1인당 지출규모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979년에 노인 1인이 약 8만 1천5백엔을 소비지출하였으며, 이는 전체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인 약 6만 6천4백엔에 비해 약 23%가 많은 액수였다. 1979년 일본에서는 노인 1인이 전체 평균의 123%를 소비하였던 셈이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자료를 토대로 노인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국민 1인당 지출액수의 123%라고 보고 노인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를 예측, 이를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로 가정하고자 한다. 1979년의 일본자료를 기초로 하는 이유는 자료구득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구구조면에서 약 30년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2010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소비구조가 1979년 일본 상황과 유사할 수도 있다는 예상에 근거한다. 한편, 실버시장은 65세 이상에 대한 실버시장과 60세 이상 실버 시장이 동시에 고려될 것이다. 60세 이상 실버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평균 은퇴연령이 60세 전후로, 이들 노인예비층이 실버시장 소비층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측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구성하는 실버시장의 규모는 1994년에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8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00년에 약 16조원, 2005년에 약 25조원, 2010년에 약 37조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지출 규모는
연령별로 크게
상이하여 55~64세
노인은 평균보다
16%, 65~74세
노인은 4%를 더
소비한 반면, 75세
이상 노인은 오히려
7% 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실버시장 규모는 2000년에 약 16조원, 2005년에 약 25조원, 2010년에 약 37조원으로 연평균 9.5%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으로 향후 16년간 연평균 9.5%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0세 이상 소비층의 지출 규모인 실버시장은 1994년에 약 14조원의 규모로 예측되며 2000년, 2005년, 2010년에 각각 25조원, 38조원, 54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성장소비지출의 예상 성장률인 5.9%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표 3.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단위: 십억원, 1990년 불변가격)

연도	민간최종 소비지출	65세 이상 실버시장		60세 이상 실버시장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994	127,714	8,656	6.7	13,651	10.6
1995	137,513	9,590	6.9	15,222	11.0
1996	145,698	10,465	7.1	16,720	11.4
2000	189,167	15,752	8.3	24,780	13.0
2005	251,566	25,280	10.0	37,779	15.0
2010	318,865	36,866	11.5	53,888	16.8
성장률(%)	5.9	9.5	-	9.0	-

한편, 일본 「조일생명보험」의 예측결과를 보면,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일본에서는 2000년까지 60세 이상에 대한 실버시장의 예상성장률은 약 8.0%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예상성장률 9.0%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일본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예상성장률 4.6%보다는 역시 높은 값이다. 일본에서는 실버시장이 1982년 약 26조엔에서 2000년에는 약 106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실버시장 소비지출의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실버산업의 분야별 시장규모 예측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야별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버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어떠한 방법으로 예측할 것인가

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실버서비스진흥회」와 「조일생명보험」의 구분을 참고하여 실버산업을 주거관련 분야, 보건·의료분야, 교육·관광 등의 여가활동분야, 의류·식품 등의 생활관련분야로 구분하고자 한다. 주거관련분야에는 양호·요양·재가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아직 시장형성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실버시장 규모를 분야별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분야별 시장점유율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982년 약 26조엔 규모의 일본 실버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분야는 주생활분야로 전체 실버시장의 26.2% 정도 점유하였다. 그 다음이 여가활동분야로 25.8%, 3위가 건강분야로 22.1%였다. 그러나 5년 후인 1987년에는 시장점유 순위가 변동하였다. 1982년 2위였던 여가활동분야가 1위로 부상하여 주생활분야와 순위가 바뀌었던 것이다. 고령기의 소득이 향상되어 삶의 여유가 생김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버시장의 분야별 시장점유율 변동자료를 기초로 2000년 실버시장 규모를 예측한 일본의 「조일생명보험」에서는 2000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분야의 시장점유율은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전의 양상과는 달리 건강분야의 점유율이 주생활분야의 비율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내 분야별 시장점유율의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버시장 양상이 2010년에 약 30년전인 1982년의 일본 실버시장의 점유양상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시장 규모는 주거관련분야 및 여가활동분야의 경우 2010년에 각각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관광 등 부문에서의 지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전체 여가활동지출의 약 94%에 해당된다. 보건·의료분야는 약 8조원, 생활관련분야는 약 9조원 정도의 지출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활관련분야에서 식품부문은 약 7조원 정도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인예비층을 포함한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실버시장 규모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

일본에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실버시장
소비지출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내 분야별
시장점유율은 관광
등 부문에서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년에 총 28조원이라는 규모가 주거관련분야 및 여가활동분야를
통해 지출될 것이며, 또한 보건·의료분야에는 약 12조원, 생활관
련분야에는 약 14조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우리나라 실버시장의 분야별 규모 예측

(단위: 십억원, 1990년 불변가격)

구 분	점유율 (%)	1996		2000		2005		2010	
		65 ⁺	60 ⁺						
주거관련	26.2	2,742	4,380	4,127	6,492	6,623	9,898	9,659	14,118
보건·의료	22.1	2,312	3,695	3,481	5,476	5,586	8,349	8,147	11,909
여가활동	27.5	2,877	4,597	4,331	6,814	6,951	10,389	10,137	14,819
교육	1.7	177	284	267	421	429	642	626	916
관광 등	25.8	2,700	4,313	4,064	6,393	6,522	9,747	9,511	13,903
생활관련	24.2	2,532	4,045	3,811	5,996	6,117	9,142	8,920	13,040
의류	6.1	638	1,019	960	1,511	1,542	2,304	2,248	3,287
식품 등	18.1	1,894	3,026	2,851	4,485	4,575	6,838	6,672	9,753
합 계	100.0	10,463	16,717	15,750	24,778	25,277	37,778	36,863	53,886

2. 실버산업의 분야별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태동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고정수입원을 갖는 경제력을 갖춘 고령 소비자층은 노인 절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확대될 전망이어서, 실버산업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밝다고 할 수 있다.

1) 주거관련분야

주거관련분야 실버시장 규모는 2010년에 65세 이상 기준 약 10조원, 60세 이상 기준 약 14조원에 이르러 여가활동분야 다음의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주로 앞으로 노인들의 절대수 및 자녀와의 별거노인수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고령으로 인한 질병 및 장애 발생이 빈번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노인주거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 이상 경제력이 있는 노인수도 증가하여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주거관련분야 실버시장은 점차로 팽창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율 하락과 함께 주거관련분야 실버시장 규모에 순방향의 영향을 줄 것이다. 1995년에 약 2백54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수는 2010년에는 약 1.8배 증가하여 약 4백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녀와의 동거율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로 볼 때 노인들만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의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자녀와의 동거노인의 비율은 78.3%로 노인의 대다수가 장남 등과 함께 살았으나, 1994년에는 동거율은 53.8%로 9년만에 24.5% 포인트나 하락한 바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의 「주택통계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있는 가구수는 1993년 전체 가구수의 약 28.9%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단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관련분야 실버시장에서는 노인수의 증가와 자녀와의 동거율 하락 추세로 볼 때 노인들만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우리나라 노인 가족형태의 변화

(단위: %)

구 분	1985 (N=3,704)	1989 (N=1,005)	1990 (인구조사)	1994 (N=2,056)
자녀와 동거	78.3	73.5	72.4	53.8
노인단독가구	20.5	25.1	25.5	41.0
기타 가구	1.2	1.4	2.1	5.2
계	100.0	100.0	100.0	100.0

노인수의 증가와 자녀와의 동거율 하락 현상에 직면하여, 민간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원, 실버타운, 노인아파트, 노인전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진료기능을 갖춰 고령으로 인한 질병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용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기능을 갖춰 고령으로 인한 질병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하는 형태로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유료노인홈은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자유로이 계약하고 전액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 및 일상생활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수와 정원수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24년간 각각 연평균 7.20%, 11.65%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고령이 될수록 만성질환(고혈압성·뇌혈관 질환, 치매성 질환 등)이 더해지고 노쇠현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약화되지만,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직접 간호받기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가진 주택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의 정원수는 197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연평균 약 6%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특별양호노인홈은 정원면에서 무려 17배나 증가하여 연평균 13%, 또한 경비노인홈은 7배 정도 증가하여 연평균 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표 6. 일본 유료노인홈의 증가추이

(단위: 개소, 명)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연평균 증가율(%)
시설수	50	73	76	97	173	265	7.20
정원수	1,900	3,731	5,567	8,490	17,420	26,776	11.65

2) 재가서비스분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들을 가정에서 보

호하거나 간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재가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분류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특별하게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정부의 보조 및 지원 없이 재가서비스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서비스공급이 수지면에서 취약한 이유는 첫째,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며, 셋째,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 직접 가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등 비금전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재가서비스의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하나 공급기업의 시장진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시장메카니즘이 신속히 그리고 원활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분야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정·촌)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만 경우에 따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간 참여기업은 사업수지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일본정부는 용자제도 및 세제조치 등을 시행하는 등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양질의 재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보건·의료분야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노인층의 연령구조도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만성화됨으로써 노인관련 보건의료비 지출은 날로 증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1990년에는 노인의 외래수진, 입원수진, 진료비가 기타 연령층에 비해 1.05배, 1.72배, 1.75배였으나, 1993년에는 각각 1.22배, 1.91배, 2.05배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1인당 의료이용률과 의료비지출이 기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며, 양자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집중적인
치료보다는
장기간의 요양과
간호를 요하는 노인
만성퇴행성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인전문병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단기집중적인 치료보다는 장기간의 요양과 간호를 요하는 노인 만성퇴행성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신체장애를 완화하는 노인전문의료기기, 노인복지용구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실버시장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있어서는 2010년에 약 8조원,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약 12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 금융보험분야

금융보험분야는 단기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여지가 가장 넓은 분야로 중·장기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노인층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예비층 또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관련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연금식의 상품보다는 개호 또는 관광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는 개호에 따른 금전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호보험 및 개호비용보험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들에게는 개호서비스, 건강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계약고는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표 7. 일본 개호보험의 계약 추이

(단위: 만건, 억엔)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개호보험	계약건수	50	12	19	26	33
	계약액	1,468	3,176	5,158	6,801	8,702
개호비용보험	계약건수	-	-	-	44	70
	수입보험료	-	-	-	545	1,128

5) 여가활동분야

실버시장의 여가활동분야 규모는 65세 이상이 2010년에 약

10조원이고, 60세 이상의 경우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동 분야는 실버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활동분야는 취업·교육 등 사회참여부문, 취미·건강·스포츠·관광 등의 여가활용부문,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생활환경 개선, 안전관리, 개호·가사부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료가 없는 관계로, 1993년 일본 총무청 「노인 대책실」 주관으로 행해진 「지역사회활동참여에 관한 조사」를 참고하면, 현재의 사회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노인의 비율은 전체노인의 절반이 넘는 64.3%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의사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참여의사를 가진 노인의 비율은 5년전인 198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가 점차 적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인들은 개별적인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일본 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의향

(단위: %)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1988년 전체		60.1	33.2	6.7
1993년 전체		64.3	31.0	4.7
성별	남 자	67.3	28.1	4.6
	여 자	61.8	33.5	4.7
연령 계급	60~64세	70.3	24.4	5.3
	65~69세	66.2	29.6	4.3
	70~74세	61.9	33.4	4.7
	75~79세	58.0	38.3	4.7
	80세 이상	44.3	50.7	5.0

일본노인의 여가활동을 관광부문, 취미창작부문, 오락부문, 스포츠부문으로 나눌 때, 1988년 노인계층의 여가활동관련 소비규

노인들의 착용 및 활동에 편리한 의류부문의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모든 전체연령층의 소비규모의 약 12.7%로, 관광부문 소비규모는 노인이 여가활동에 소비한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참여욕구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인소득이 증가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풍부한 시간과 건강을 보유한 노인들은 개별적인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일본 고령자계층의 부문별 여가활동 비용(1988)

(단위: 억엔, %)

구 분	전체연령층 소비	고령자층 소비	고령자층 소비비율	고령자소비 규모 대비
관광	159,442	25,578	16.04	47.99
취미·창작	68,621	12,083	17.60	22.67
오락	124,937	10,921	8.74	20.49
스포츠	66,441	4,719	7.10	8.85
계	419,441	53,301	12.70	-

6) 생활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 실버시장규모를 65세 이상 기준으로 2010년에 의류부문 약 2조원, 식품부문 약 7조원 도합 약 9조원으로 예측되었다. 일본의 예에서 볼 때, 의류부문은 노인들이 착용하고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고가의 정장류보다는 주로 평상복, 내의, 환자복에 국한하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용품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기능저하를 감안하여 조작성이 간편하고, 또한 차별한 색상과 안정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부문에서는 와병 또는 기능장애의 노인을 위한 기능보완용 식품이 요구될 것이며, 서구식과 간편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기호식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